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different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음 4월 11일 丙戌)

Table with 2 columns: Age (e.g., 36년생, 48년생) and Fortune prediction text.

“고향 해주에서 ‘전국!~’ 외치는게 내 소원”

KBS ‘전국노래자랑’ 30년 원로 MC 송해



“우리나라에 군(郡)이 200여 개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씩 군 단위로 치면 어렵잖아도 전국을 10바퀴가량 돈 셈이지.”

매주 일요일 12시10분 전국의 시청자들은 이 사람의 한 마디를 듣고자 TV 앞으로 모여든다. 구상된 ‘전국!~’ 한 마디에 온 나라를 들쭉이게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원로 방송인 송해(86).

지난 1984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 지도 어느덧 30년째를 맞았다.

최근 양천구 신정동 ‘전국노래자랑’ 양천구 편 녹화장에서 그를 만났다.

“요새 ‘슈퍼스타 K’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졌잖아? 그것도 이게 원조지, 음악과 노래가 있고, 불거리가 많으니 얼마나 재밌게 준비해오는지 몰라. 우리나라에서 ‘놀자란’ 벌리는 건 내가 최고야. (웃음)”

“전국노래자랑” 예선 현장에서 만난 송해는 빼곡히 적힌 MC 대본을 외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에게서는 30년 세월에서 묻어나온 열정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바닷가 항구 도시는 특히나 화끈해.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에서는 3000명도 몰려들고는 했지. 강원도 쪽도 바닷가 사람들이 아주 활발해. 요즘은 전부 평준화가 됐어. 실력이 다 비등비등하거든.”

단일 TV 프로그램 MC 자리를 30년 동안 지키는 그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송해는 “처음에는 장소가 ‘거기거기 거기’일까 봐 걱정했는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행정구역도 쪼개지면서 갈 곳이 점차 없어났다”며 “지방의 각종 문화행사에서 사람을 모으기에는 ‘전국노래자랑’이 최고였기 때문”이라고 그동안의 변화를 소개했다.

“전국노래자랑”은 그간 지역과 지역, 머리와 시어머니 등 사람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주 여성들의 출연이 부쩍 늘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 가는 곳마다 외국 출신 출연자가 2!3명은 꼭 나와, 특히 필리핀 출신 친구들이 음악성이 좋더라고. 비행기 타고 미국, 중국, 파라과이까지 다녀오기도 했지. 세계화가 된 거야.(웃음)”

지금까지 그가 만난 출연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터다. ‘인상 깊었던 출연자’를 묻자 3곡을 연달아 열창하고 박수갈채를 받은 시각장애인, 젊은 시절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의족을 착용하고 춤을 펼친 여성, 시어머니는 춤을 추고 머느리가 노래하던 고부 등 전국을 아우른 이야기보따리가 ‘술술’ 나왔다.

송해는 지금은 갈 수 없는 황해도 해주 출신이다. 그러기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만은 유독 예민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아 이달 예정됐던 공연 ‘송해 빅쇼’를 취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옛날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성공단과 고향 해주를 포함해 신의주, 원산 등 6군데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다 물거품이 된 거지.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

송해는 최근 바쁜 일정을 쫓아 전북 임실에서 KBS 2TV 단막극 ‘사춘기 메들리’ 카메라 출연을 했다. 구 중 그의 역할도 ‘전국노래자랑’ MC. 그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듯싶다.

또 다음 달 청소년 장학금과 50~60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다. 한 제약회사의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받은 수익을 출연할 예정이다. 그는 “재단 이름이나 구체적인 설립 일정은 회사 측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어쨌든 내 고향 해주에 가서 ‘전국!~’을 외쳐야 할 때 그대로 거기서 야단법석을 한번 떨어봐야지.”

연철뉴스

무당 ‘김금화’ 일생 담은 판타지 영화 ‘만신’

문소리·류현경·김새론 3인1역... 하반기 개봉

배우 문소리와 류현경, 김새론이 박찬경 감독의 신작 ‘만신’ <사진>에 출연했다고 영화사 불이 18일 전했다.

이 작품은 ‘나라만신’으로 알려진 큰 무당 김금화의 판타지 장한 생애와 그에 깃든 전통 문화의 상상력을 우리 현대사 속에서 돌아보는 판타지 다큐멘터리다.

이미 친형인 박찬욱 감독과 함께 단편 ‘파란만장’에서 한국 무속을 재해석한 박찬경 감독이 2년 동안 공들여 만든 장편 영화다.

김금화 만신의 자서전 ‘비단 꽃 넘세’를 바탕으로 극중 주요 사건들의 50%가량을 한국적 판타지가 가득한 재연 드라마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연 드라마에서 문소리, 류현경, 김새론은 각각 서로 다른 나이의 김금화 만신을 연기한다.

김새론은 일제 강점기 황해도 바닷가에서 외롭게 자라며 신병을 앓은 김금화 만신의 어린 시절 ‘넘세’ 역을 맡았고, 류현경은 열일곱 살에 내림굿을 받은 뒤 한국전쟁 당시 무당이라는 이유

로 목숨을 위협당한 새만신 김화로 분한다. 문소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광풍 속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존감과 위엄을 잃지 않은 중년의 김금화를 연기한다.

영화는 지난해 11월 촬영을 마친 뒤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간곡제영화제 필름마켓 기간에 해외 영화제 관계자와 바이어들에게도 소개된다. 해외 배급은 이창동, 김기덕, 홍승수 감독 등의 작품을 배급해온 화인컷이 맡는다.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연철뉴스



TV 하이라이트

돌아온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채널A TV·20일 밤 11시) = 지난해 화제의 프로그램인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가 시즌2로 돌아온다.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는 본방송뿐만 아니라 재방송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뿌렸던 프로그램이다.

20일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시즌2는 1편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과 사건,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들을 논리로 풀어낸 예정이다.

첫 화는 ‘전생’ 편으로, 이영돈 PD가 직접 체험에 나서 전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작진은 “시즌2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간헐성 단식’, ‘연예인 성형’ 등 다양한 소재 등을 통해 여러 문제의 허와 실을 조명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을 담은 ‘사찰음식’ 맛 여행



요리비전(EBS TV·20일 오후 8시20분) = 자연을 그대로 담은 자비의 밥상이 있다. 바로 사찰음식이다. 사찰에서는 음식재료를 재배하는 일에서부터 음식을 만드는 일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 사찰음식은 동물성 식재료와 오싹한 기름을 금하고 있다. 강한 입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심심한 음식이 될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먹는 사찰음식이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사찰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찰음식 전문점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에 있는 사찰음식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의 밥상을 맛 볼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은 사찰음식을 찾아 떠나본다.

직위 해제되어 잡일 하는 규칙



직장의 신(KBS 2TV·20일 밤 10시) = 부장님도 쫓겨가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김과 그녀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일과 사랑을 리얼한 에피소드 안에 그려내고 있는 본격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직장의 신이 매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하고 있다.

PT 사건 이후로 규칙은 직위 해제되어 대기 발령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지원부 구석에 허름한 책상에 벽보고 앉아 자신이 잡일(?)이라 비웃던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엄마한테 잘하자’ 도시락 출시 기념 사회화가 열리고, 지원부 일동은 모두 나가 직장인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다.

반찬을 퍼주던 미스김은 우연히 원대리를 만나게 되고, 둘 사이가 신경쓰이는 규칙은 전담자를 건성으로 나눠주며 점점 폭으로 간다.

연철뉴스